

금리 추가인상 압박에 치솟는 대출금리... 영끌족 '덜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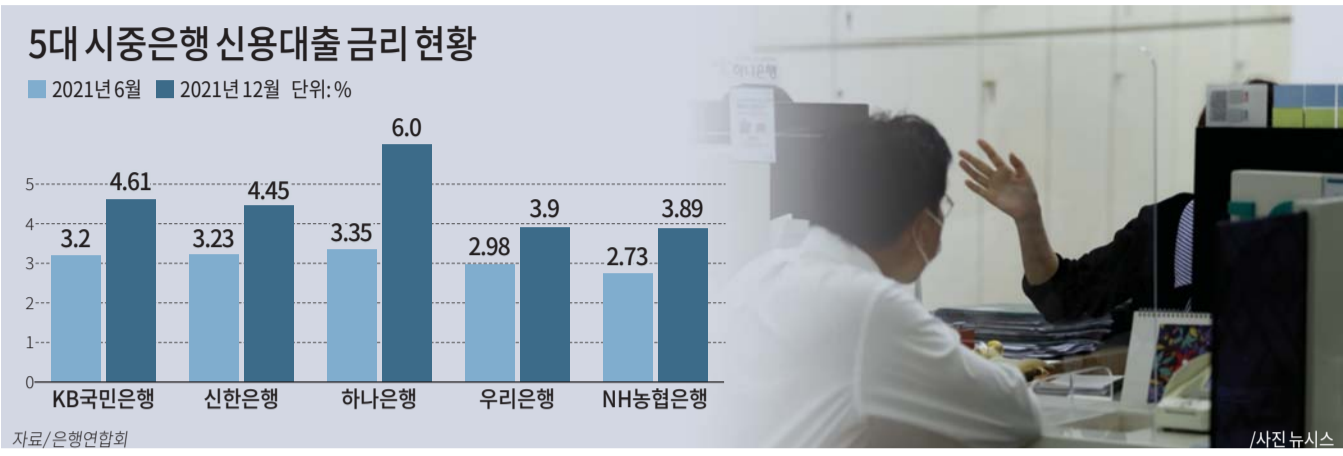
14일 금통위서 금리 인상 무계
시중銀 평균 신용대출금리 5.0%
주담대는 7일 만에 최대 2%p↑
집·주식 등 영끌족 이자부담 가중

연초부터 은행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경기회복을 위해 예상보다 더 빨리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예고한 데 따른 영향이다.

오는 14일 한국은행도 이에 맞춰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빚을 끌어 모아 집을 사거나 주식, 가상화폐에 투자한 '영끌족'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

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12월 신용대출금리는 평균 연 5.0%로 집계됐다. 하나은행이 연 6.0%로 가장 높았고,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4.61%, 4.45%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6월 이들 은행의 신용대



출 금리가 평균 연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오른 셈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78%에서 3.6%로 1%p 포인트(p)가량 올랐다. 지난 7일 기준 이들 은행의 혼합형(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72~5.50%, 변동형은 3.57~5.07%다. 6개월 사이에 1%p 상승했던 금리가 12월에서 1월로 넘어온 지 1주일만에 최대 2%p 가량 올랐다는 분석이다.

금리가 상승곡선을 그리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과 11월 금리를 각

각 0.25%p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11월 기준 금리를 0.25%p 인상한 뒤 "(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내년 1분기(1~3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금리인상 시기를 오는 14일로 예측한다. BNP파리바는 보고서 통해 "1월 14일 열리는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상에 1.25%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2월 금통위는 3월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시기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2월보다는 조금 더 서둘러 1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담대 연 6%까지 오를 수도...변동형→고정형 수요 늘어

이에 따라 빚을 끌어 모아 집을 사거나 주식, 가상화폐에 투자한 '영끌족'의 이자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만기 3개월~1년 은행채 금리와 연동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년만기 은행채 금리는 지난해 8월 금리인상을 한 뒤 꾸준히 금리가 오르고 있다. 지난해 9월 신용등급 AAA 1년만기 은행채 금

리는 1.361%로 전월 대비 0.158%p 상승했고, 10월에는 0.681%로 전월 대비 0.32%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신용등급 AAA 은행채 금리도 지난해 8월 1.854%에서 10월 2.619%로 0.765%p 올랐다. 특히 5년만기 은행채 금리는 연말에 2.259%에서 지난 6일 2.544%로 일주일 새 0.285%포인트 상승해 보름 새 0.392%포인트나 올랐다.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올리고 연내에 한 두 차례 추가 인상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대를 돌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변동형 주담대 상품 대신 고정형 주담대 상품을 선택하는 수요는 늘고 있다. 이미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고정형이 변동형보다 상당과 하단이 모두 더 낮은 역전 현상이 나타난 상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들어 고정형 주담대 상품에 대한 고객 문의가 늘어났고, 창구에서도 신규가입자들에게 고정형 상품을 추천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출산율 위기 中... 女 "결혼·출산 스트레스"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2020년 출생률 43년 만에 최저치
산아제한 정책 사실상 폐지했지만
Z세대 중심 여성, 결혼에 '부정적'

중국 경제가 인구 절벽이라는 장애물에 발목을 잡았다. 지난 40년 동안 중국에 경제성장의 호황을 가져다 준 가장 큰 기반은 바로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라는 점이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중국은 유독 하락폭이 컸다. 수십 년간 강력했던 산아제한 정책의 여파에 젊은 세대들의 바뀐 인식이 맞물린 탓이다.

9일 외신 등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출생률(인구 1000명 당 신생아 수)은 8.52명으로 1978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4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의 출생률은 지난 2017년 12.43명에서 2018년 10.94명, 2019년 10.48명으로 매년 감소했다. 10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다.

허난성의 경우 지난해 신생아 수가 92만명으로 2019년 대비 23.3%나 급감했다. 허난성은 중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행정 구역이다.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인구자연증가율은 1000명당 1.45명이다. 이 역시 1978년 이후 최저치다.

국가 인구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출산율은 2020년 여성 1인당 1.3명으로 떨어졌다. 2.1명 미만은 일반적으로 인구 감소를 뜻한다.

중국은 인구 과잉과 빈곤 완화를 위해 지난 1978년부터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해 왔다. 출산율이 가파르게 내려가자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지만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고, 지난해에는 자녀 수를

3명까지 허용하며 산아제한 정책을 사실상 폐지했다.

많은 지방 성과 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체 인센티브를 내놨다. 둘째나 셋째 자녀를 위해 더 많은 출산휴가나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비판만 받고 말았다. 둘째, 셋째가 문제가 아니라 첫째, 즉 자녀 자체를 낳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에서 1995년에서 2010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 여성들의 경우 출산은 물론 결혼 자체를 우선 순위로 생각하지 않는다.

광저우의 카페에서 일하는 한 25세 여성은 "나와 사촌 언니 두 명은 모두 집 안에서 하나뿐인 자녀이지만 원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하며, 아이는 필수가 아니라고들 한다"며 "결혼과 출산은 젊은이들에게 스트레스와 거의 동의어"라고 전했다.

Z세대 여성의 경우 결혼 의사도 남성보다 현저히 낮았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공산주의청년동맹이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조사 결과, 18~26세의 미혼 도시 거주자 여성 가운데 43.9%가 결혼할 의사가 없거나 결혼할 것인지 확신이 없다고 답했다. 미혼 남성 대비 19.3%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중국의 유명작가이자 많은 SNS 여성 팔로워를 가진 선자커는 "중국 도시 가정은 수십 년 동안 부를 축적해 왔고,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그부의 상당 부분을 젊은 도시 여성이 가지고 있다"며 "교육을 잘 받고 재정적으로 여유있는 젊은 여성의 수가 동년배 남성의 수와 같거나 심지어 더 많다는 점은 사회, 특히 인구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젊은 여성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중앙정부의 2021년 통계연감에 따르면 20~34세 성인 중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의 52.7%가 여성이다.

한편 중국은 작년 국내 총생산(GDP) 수치를 발표하는 오는 17일에 2021년 연간 인구 데이터도 발표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 1면 '14일 임인년'서 계속

美연준 양적긴축 카드 글로벌 불확실성 고조

이어 배포한 범금융권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는 예전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양극화·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도 한층 커졌다"라며 "금융완화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와 얽힌 부진에 직면해 있는 일부가게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1월 금리인상을 염두에 두고 레버리지를 우려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준도 예상보다 빠른 기준금리 인상과 대차대조표 축소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12월 FOMC 의사록에서 "경제, 노동시장,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별적 전망을 고려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다.

업계에서는 금통위가 매파적인 시각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준의 예상보다 빠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서다.

안예하키움증권 연구원은 "당초 12월 FOMC과 1월 금통위를 소화하면서 당분간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미연준의 양적 긴축카드가 등장하면서 다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현대차·기아 영업익 12조4658억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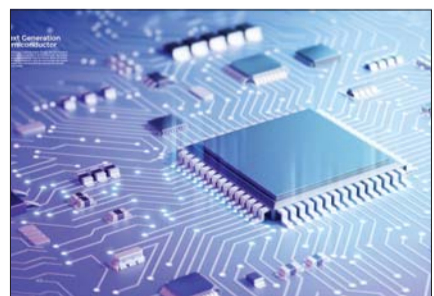
>> 1면 '코로나에도 새 역사'서 계속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7조824억원, 기아는 5조3834억원으로 추정됐다. 두 회사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의 전망치는 12조4658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총당금 쇼크'로 부진했던 양사 합산 영업이익의 4조4612억원과 비교해 약 3배 늘어날 수 있다. 전망대로라면 2012년(11조9592억원) 기록했던 연간 합산 영업이익 사상 최고치도 경신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의 경우 7조원이 넘는 연간 영업이익을 올리면 2014년 7조5500억원 이후 7년 만에 최대 연간 영업이익을 새롭게 작성한다. 올 3분기까지 누적 3조890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기아는 이미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물론이고 기존 최대 연간 영업이익(2012년 3조5223억원)을 이미 3분기 만에 넘어선 상태다. 이 같은 호실적은 코로나19와 반도체 공급난이라는 '이중고'에도 불구하고 외형을 견고하게 유지한 데 따른 것



반도체.

로 분석된다.

현대차·기아의 매출 전망치는 현대차는 118조545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기아는 71조5290억원으로 20.9%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도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작

성하고 있다. 특히 철강업계 만형인 포스코는 지난해 최대 분기실적을 기록에 이어 연간 영업이익 9조원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의 철강가격이 약세를 보였지만 탄탄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실적 상승세에 탄력이 붙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포스코의 연결기준 지난해 실적 전망치는 매출 75조2758억원, 영업이익은 9조345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년 대비 매출은 30.25%, 영업이익은 288.92% 각각 증가한 규모다. 이는 지난해 10월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한 연간 매출 74조 2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양성윤 기자 ysw@